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9년 02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

# 초등학교 아동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 비교 연구

- 전라남도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조 현 복

초등학교 아동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 비교 연구

- 전라남도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acceptable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2009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조 현 복

초등학교 아동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 비교 연구

- 전라남도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

지도교수 김 남 순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조 현 복



# 목 차

표목차 .....	iii
그림목자 .....	v
ABSTRACT .....	vi
<b>I. 서 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문제 .....	3
3. 용어의 정의 .....	3
<b>II. 이론적 배경</b> .....	5
1. 장애인에 대한 태도 .....	5
2.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9
3. 선행연구 고찰 .....	11
<b>III. 연구의 방법</b> .....	13
1. 연구의 대상 .....	13
2. 검사도구 .....	14
3. 연구절차 .....	15
4. 자료처리 .....	15
<b>IV. 연구결과</b> .....	16
1.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장애아동 수용태도 비교 .....	16
2.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아동 수용태도 비교 .....	19

3. 학년 수준에 따른 장애아동 수용태도 비교 .....	21
4. 성별에 따른 장애아동 수용태도 비교 .....	24
5. 통합학급 소속 유·무 와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아동 수용태도 비교 .....	27
<b>V. 논의</b> .....	38
<b>V. 결론 및 제언</b> .....	42
1. 결론 .....	42
2. 제언 .....	43
<b>참고문헌</b> .....	45
<b>부 록</b> .....	47

## 표 목 차

<표 II-1> 선행연구 분석 .....	11
<표 III-1> 설문지의 배경 변인별 분포 현황 .....	13
<표 III- 2> 형용사 척도 용어 .....	14
<표 IV- 1>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학업관련 수용태도 비교 .....	16
<표 IV- 2>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신체적 외양 수용태도 비교 .....	17
<표 IV- 3>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사회적 행동 수용태도 비교 .....	18
<표 IV- 4>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감정 수용태도 비교 .....	18
<표 IV- 5>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학업 관련 수용태도 비교 .....	19
<표 IV- 6>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신체적 외양 수용태도 비교 .....	20
<표 IV- 7>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적 행동 수용태도 비교 .....	20
<표 IV- 8>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감정 수용태도 비교 .....	21
<표 IV- 9> 학년 수준에 따른 학업 관련 수용태도 비교 .....	22
<표 IV-10> 학년 수준에 따른 신체적 외양 수용태도 비교 .....	22
<표 IV-11> 학년 수준에 따른 사회적 행동 수용태도 비교 .....	23
<표 IV-12> 학년 수준에 따른 감정 수용태도 비교 .....	24
<표 IV-13> 성별에 따른 학업 관련 수용태도 비교 .....	24
<표 IV-14> 성별에 따른 신체적 외양 수용태도 비교 .....	25
<표 IV-15> 성별에 따른 사회적 행동 수용태도 비교 .....	26
<표 IV-16> 성별에 따른 감정 수용태도 비교 .....	26
<표 IV-17> 통합학급아동의 통합경험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학업면) .....	27
<표 IV-18> 통합학급아동의 통합경험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신체적외양) .....	28
<표 IV-19> 통합학급아동의 통합경험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사회적행동) .....	28
<표 IV-20> 통합학급아동의 통합경험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감정) .....	29



<표 IV-21> 통합경험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학업면) .....	29
<표 IV-22> 통합경험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신체적외양) .....	30
<표 IV-23> 통합경험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사회적행동) .....	31
<표 IV-24> 통합경험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감정) .....	31
<표 IV-25> 통합경험이 있는 아동의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학업면) .....	32
<표 IV-26> 통합경험이 있는 아동의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신체적외양) ..	33
<표 IV-27> 통합경험이 있는 아동의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사회적행동) ..	33
<표 IV-28> 통합경험이 있는 아동의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감정) .....	34
<표 IV-29> 통합경험이 없는 아동의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학업면) .....	35
<표 IV-30> 통합경험이 없는 아동의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신체적외양) ..	35
<표 IV-31> 통합경험이 없는 아동의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사회적행동) ..	36
<표 IV-32> 통합경험이 없는 아동의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감정) .....	37

## 그림 목차

<그림 1> 태도의 측정이 가능한 변수와 불가능한 매개변수 .....	6
--	---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Acceptance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Cho hyeon-bog

Advisor : Prof. Kim, Nam-soon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acceptance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it analyses what difference there is in variables such as attendance to special class, experience of integrate education, grade (medium grade or higher grade), and sex and presents the results as basic data for integrated education.

This study targeted normal children from 10 elementary schools with special class in Jeollanamdo and the province was categorized into east, west, north and south for even selection of all the areas. This study interviewed normal students of the school with special class and those from integrated class according to grade(Grade 3 to Grade 6) and sex using a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was sent on mail attached by the envelop for return.

A total of 320 copies of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of which 306 were returned (95.63% of return rate). Of those, 286 copies were analysed except 20 whose answers were not sincere.

We adjusted the adjective-scale questionnaire developed by Kim Jeong-Hyo(1990) to our study through consultation from my advisor and ten teachers of integrated education based on books and previous studies on integrated education. For statistical data, we carried a frequency test using SPSS and a chi test to identify difference in each variable. To identify the acceptance in definitive aspect, we classified adjectives used according to academic behaviors, physical attitude, social behaviors and emo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normal children who were in normal class showed more positive acceptable attitudes in

academic attitudes, physical attitude, social behaviors and emotion than normal children who were in special class. In particular, for social behaviors, 54.6% of normal children who were

not special class showed positive attitude to boys with disabilities and 57.7% showed positive attitude to girls with disabilities. The significance probability to boys with disabilities was .006 and that to that with disabilities was .005. Considering the results, this study found that normal children who were not in special class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 than those who were in special class.

Second, in a search to identify the effect of past experience of integrated class of normal children on acceptanc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 found that normal children who has no experience of integrated class in respect to academic behaviors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 In particular, to girls with disabilities, positiveness of normal children with experience of integrated education was 14.6% and that of the children without integrated education was 28.1%, which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That is, the children who had no experience of integrated education had higher acceptance. However, for social behaviors, the children with integrated education showed 55.0% of positiveness to girls with disabilities while those without integrated education showed 41.5%. The significance probability was .023. Considering the results, normal children showed low acceptance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academic behaviors while they showed positive attitude in social behaviors based on experience of integrated education.

Third, in respect to the acceptance of normal children toward children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grade, children in medium grade showed positive attitude in physical attitudes while those in higher grade showed positive attitude in social behaviors or emotion, which was not significant. In consideration of the results, grade does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acceptance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enhance living quality of those with disabilities and achieve maximum education effect through successful integrated education, we should provide more opportunities to have integrated education with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r normal children. Based on the experience, normal children will come to realize positive interaction is important with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rough training of integrated class teachers, perception of normal children with disabilities should be enhanced and educational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refore, for integrated education in which social perception and educational conditions are ripe, normal students, teachers of integrated class, special teachers, normal teachers, and administrators should cooperate together and mental,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s should be sufficiently arranged.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민주 사회는 개인의 인권이 최대로 보장되며 자아실현을 통해 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이에 장애아동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장애 정도가 심해도 그들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회 속에서 떳떳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다.

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동등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어야 하며 그들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장애아동의 교육 대책을 세우고 보호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회가 참으로 그들을 받아들여려고 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는냐가 그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넘어 진정한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이 사회에서 ‘몹시 소중하다’라는 인간 존중 사상에 입각한 인식이 되었을 때 장애아동은 그들의 정당한 삶의 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 사회인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개선되어지지 않는 한 장애아동의 자기실현의 장은 좁아 질 것이다.

사회적인 공헌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도 존재 가치가 높다는 인식에 의해 이루어진 “약자에 대한 대책”으로부터는 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합당한 대책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며, 장애아동의 교육과 복지 등 사회적 대책은 사회적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통합된 장애아동이 실제적으로 보다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수용으로 인하여 거부당하거나 고립이 된다면 통합배치는 보다 제한적인 환경이 되는 것이다. 성공적인 통합노력은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동료들의 긍정적인 태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연구결과(J. Gottlieb, and L. Corman, 1975)에 의하여 통합교육에 따른 사회적 측면에서의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수용태도에 대한 연구(J. J. Bak, and G. N. Siperstein, 1975)가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이은주, 1995. P. 3, 재인용).

한편 실직적인 의미에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간적 시간적 통합에 그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통합교육 실태를 감안해 볼 때, 사회적 통합에 있어서 동료 수용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통합교육은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동일한 환경 속에서 생활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장애아동과 함께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접촉경험은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김영성, 1999).

권상혁, 황윤환(1995)은 ‘일반교육-특수교육 완전통합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PL94-142’의 조항은 장애아동을 일반학급에 통합시키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통합교육이 추진되어감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한다.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이나 일반아동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킨다고는 하나, 그 자체로서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과의 물리적인 근접성은 이들의 사회적인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는 특수학급 아동을 직접 접촉한다는 것은 특수학급 아동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아동에 대한 물리적인 접촉경험은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동규, 안인수, 양동란(1996)은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사례’에서 통합교육은 일반아동의 장애인 인식 개선의 측면에서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아동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남을 배려하고, 나와 다를 수 있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마음이 생성되는 등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이는 장애아동과의 접촉이 일반아동의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미란(1999) 역시 ‘통합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중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비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은 유아는 일반유치원의 유아보다 장애인식을 더 많이 하였으며, 또래 장애인 수용도도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송말순(2003)은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학생의 수용태도’연구에서 여학생이 더 긍정적이며, 초등학생이 더 긍정적이

고, 경험이 없을수록 더 긍정적 수용을 하였다고 연구결과를 진술하였다. 일반아동의 장애아동 수용태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 왔으나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는 우리 교육현장에서 아직도 일반아동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긍정적 수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우리 교육계 일각에서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초등학교 일반아동을 중심으로 현재 통합학급 소속 유·무, 과거의 통합교육 경험 유·무, 학년별, 성별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일반아동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가 각 변인별로 어떻게 다른가를 밝히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아동의 수용태도는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일반아동의 수용태도는 통합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일반아동의 수용태도는 학년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넷째, 일반아동의 수용태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용어의 정의

### 가. 통합교육과 통합학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6항에서는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1조 1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말하는 통합학급이라 함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6항에 의



거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 유무와 상관없이 1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소속된 일반학급을 말한다.

## 나. 수용태도

Horne(1985)은 태도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그의 반응에 직접적 또는 역동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통해 형성되어지는 행동의 경향성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Rosenberg(1956)는 태도를 어떤 대상에 대한 비교적 안정된 정서적 반응이라 하였다(송말순, 2003. p. 4, 재인용). 본 연구에서 ‘수용태도’라 함은 장애아동들의 학업, 신체적 외양, 사회적 행동, 감정에 대한 일반아동들의 정서적인 반응정도를 말한다.

## II. 이론적 배경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전제로서 통합교육의 시대적 당위성과 제도를 살펴보고, 통합교육의 실행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학급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통학학급의 일반아동 및 일반학급 아동의 장애아동 수용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및 관련 참고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1. 장애인에 대한 태도

#### 가. 태도의 개념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자아는 태도의 개념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태도에 대한 개념 정의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근본적으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송용석, 1991).

태도란, 어떤 종류의 사회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특유의 지속적인 반응 경향 또는, 개인이 관련을 갖고 있는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적 반응으로 지지적 혹은 역동적인 영향을 주고, 경험에 의해 체계화된 심적·신경적인 준비 상태라 정의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향이 있고, 단편적인 정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 지속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경험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어느 정도 학습으로 형성된다. 또한 태도는 행위에 선행되는 경향성이며,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거나 혹은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사회적 환경에 관한 일정한 인지 구조를 확립하는 동시에 특정의 사회 행동에 대한 내적인 준비 상태로 정서적, 평가적 측면을 가진다. 따라서 태도란 특정 사물 또는 사건에 대한 반응 경향으로, 인지, 감정, 행동의 세 측면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져 오고 있다(박재국 외,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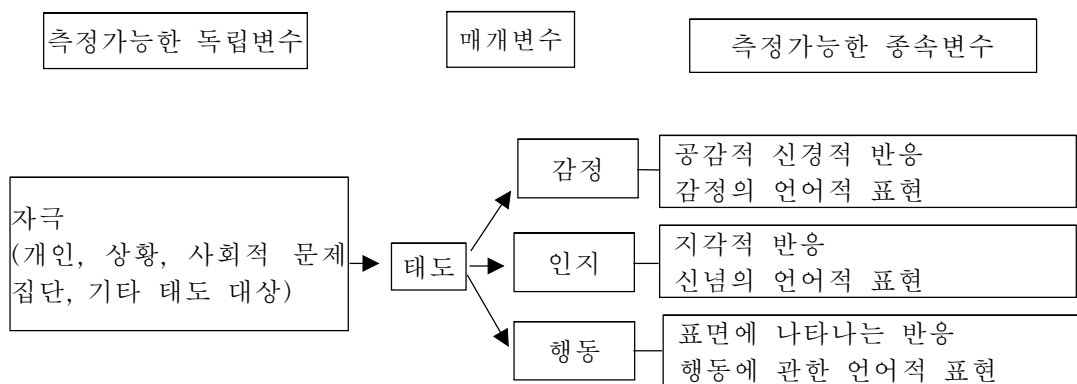
태도의 인지적 요소란 한 사물이나 사건 혹은 상황을 인지하는 방법으로서 대상에 대한 개인의 사고, 신념, 생각을 말한다. 태도의 정의적 요소는 실제적인 대상

혹은 그 대상에 관한 상징적인 묘사가 개인 내에 불러일으키는 감정 혹은 정서이다. 이 요소는 태도의 핵심으로서 인지적, 행동적 요소는 이 정의적 요소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적인 면이 배제된 인지는 신념이나 판단이며 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태도의 행동적 요소는 대상에 대한 자세가 아니라 행동하려는 경향을 말한다(김성애, 1997).

그러므로 외형적 행동은 태도의 주요 지류로 이용되는 경우가 적는데 이는 행동이 태도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변인의 영향에 의해서도 야기되며 태도는 행동의 지수가 아니라 결정 요소 또는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태도는 이와 같은 세 요소, 즉 인지적, 정의적 및 행동적 요소에 의해 일관성 있게 조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 태도는 균형을 이루고 개인은 더욱 만족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일관성이 없을 때는 자아 방어적인 태도를 이루게 된다.

Rosenberg(1960)는 태도의 여러 측면을 측정이 가능한 변수와 불가능한 매개변수로 나누어 그림과 같이 도식화하였다(박미란, 2000. p. 15, 재인용).



<그림 II-1> 태도의 측정이 가능한 변수와 불가능한 매개변수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극은 태도 대상을 나타내는 범주로 묶어지고 태도는 세 가지 측면을 가지며 각각은 다양한 종속반응에 의해 측정된다. 태도의 인지적 요소란 한 사물이나 사건 혹은 상황을 인지하는 방법으로서 대상에 대한 개

인의 사고, 신념, 생각을 말한다. 태도의 정의적 요소는 실제적인 대상 혹은 그 대상에 관한 상징적인 묘사가 개인 내에 불러일으키는 감점 혹은 정서다. 이 요소는 태도의 핵심으로서 인지적, 행동적 요소는 이 정의적 요소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의적인 면이 배제된 인지는 신념이나 판단이며 태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태도의 행동적 요소는 대상에 대한 자세가 아니라 행동하려는 경향을 말한다(박미란, 2000).

그러므로 외형적 행동은 태도의 주요 지표로 이용되는 경우가 적는데 이는 행동이 태도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변인의 영향에 의해서도 야기되며 태도는 행동의 지수가 아니라 결정요소 또는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태도의 이와 같은 세 요소, 즉 인지적, 정의적 및 행동적 요소는 일관성 있게 조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때 태도는 균형을 이루고 개인은 더욱 만족을 느끼게 되지만 일관성이 없을 때는 자아 방어적인 태도를 이루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태도의 3요소 중 인지적, 감정적 요소를 정의적 측면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고정 관념적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형용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 **나. 통합교육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시행된 특수교육 진흥법과 2008년부터 시행중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장애아에 대한 무상 교육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지원과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시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볼 때 인간 기본권리인 교육받을 권리도 과거에 비해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많은 편견을 가져왔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 요인으로 이규태(1981)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지향, 완전인간의 지향, 욕구불만의 전위, 초자아의 결여, 전통 복지법의 해이 등을 들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미신, 명칭 붙임, 또는 역사적 관습 등이 부정적 장애인 관의 형성 요인이 되었다(이태영, 1980)고하며 정재권, 김동연(1988)은 장애인의 예

술적 능력이나 결혼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태아가 장애일 경우 출산의사에 대한 반응은 주부들에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연구한 Siller(1967)는 요인 분석을 통해 7가지의 태도를 제시했다. 즉 장애인을 접촉할 때 정상인들이 긴장감을 느껴 장애자나 농아니 하는 말조차 쓰기를 꺼리는 태도(접촉 시 긴장감), 장애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미친 사람으로 취급한다(친교의 거부), 장애아동의 능력이나 특수교육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입학과 취업을 거부하는 태도(일반적 거부), 장애인을 인간 평등과 존엄성에 근거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에 의거하여 장애인을 돕고 교육하는 것을 미덕으로 믿는 태도(권위적 미덕), 장애인은 누구나 이상성격을 가지고 있어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고 느끼는 반응(추론적 정서장애), 죄와 장애를 동일시하여 장애인을 보면 자신의 약점이나 죄를 생각하게 되어 자신도 저렇게 장애인이 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태도(왜곡된 동일시). 장애인은 무능력해서 부모나 전문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믿는 태도(무능) 등이다(박미란, 2000. p. 17, 재인용).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장애인 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습능력이 있는 학령기 대상자에게는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 것이고, 신체적 결함이 학습에 장애가 없는 한 이들이 정상 교육환경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갑순(1980)은 장애인에 대한 초등학교 아동의 태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으며 성별이나 접촉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장애인과 가까이 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접촉하는 가운데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으니, 조기교육에서부터 통합을 시작하여 초등, 중등에서까지 연계하여 통합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아동들에게 장애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도 장애인을 친구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과 그들도 우리와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한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김성애(1997)는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특수학급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통합

교육 지향적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가 실시해 왔던 특수학급 체제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예를 들면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과 교사의 인식부족 및 편견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및 교사의 교육과 접촉기회 결여로 인한 것이다.’라고 했고, 장학자료 제614호(1997)에서는 경도정신지체 아동들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지원하는 자료의 부족, 일반교육에 알맞지 않은 교육과정, 직업교육의 제한, 그리고 행정절차에 있어서 불편성 등 4개의 주요문제에 대해 우려를 하였다. 김원경(1996)은 또한 통합교육이 추구하는 바가 장애아동의 사회적인 정상화라고 한다면 통합의 장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요인인 일반아동이 장애아동을 편견 없이 수용하여 적절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를 볼 때 실제적으로 통합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 아동들의 장애 아동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김원경, 1996)고 주장한다.

일반아동들의 경우 장애아동과의 통합교육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접촉의 기회가 거듭되면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게 되며 그 결과 자신의 편견이 부당하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될 것이다.

## 2.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연구들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이러한 요인들 중에는 일반아동의 성별, 학년, 접촉경험 유·무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성, 1999).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장애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본 연구문제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일반아동의 장애아동과의 접촉경험

통합교육의 목적은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윈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일반아동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은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며, 장애아동에게 있어서는 일반아동과의 생활을 통

한 사회적응능력의 향상에 있다. 따라서 통합교육은 장차 사회생활에서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있다. 그러나 통합교육에 있어서 아무런 교육적인 조치가 없는 단순한 통합의 경우 일반아동이 장애아동의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래의 목적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 **나. 일반아동의 성별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

Goodman은 무학년제 초등학교에서의 교육가능급 정신지체 아동의 수용태도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에서 성별 차에 의한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친구’와 ‘보통’, ‘혐오’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척도에서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교육가능급 정신지체 아동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했으며, Siperstein과 Budoff의 연구에서도 여자아동 피해자가 정상 외모이며 하위능력자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자아동보다 우호적이었고, 남자아동들이 극히 부정적인데 비해 중립적이었다’고 보고했다(김영성, 1999. p. 15, 재인용)

한편 또 다른 연구(Siperstein 과 Gttlieb, 1978)에서는 여자아동이 신체장애나 수행수준에 관계없이 대상아동에 대해 덜 수용적이라는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김영성, 1999. p. 18, 재인용). 따라서 성별에 의한 장애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일관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 **다. 일반아동의 학년 차에 의한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

편견은 잘못된 인식이나 교육에서 비롯된다. 즉 부모나 주위의 친구, 그리고 교사들의 잘못된 인식은 아동에게 그대로 인식되며, 이러한 것은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심화될 수 있다. 김광웅(1990)은 일반아동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없이는 장애아동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며, 태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하였다. 즉 어릴 때 형성된 타인에 대한 편견은 나이를 먹어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은주의 연구에서는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에서 유의수준 1%수준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10,11,12세 순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더 수용적이었다고 했다(김영성, 1999).

### 3. 선행연구 고찰

일반아동의 특수아동에 대한 수용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고찰해 본 결과는 <표 II-1>과 같다.

<표 II-1>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 (년도)	연구주제 <소속>	연구결과	문제점
이은주 (1995)	정신지체 또래에 대한 일반아동의 수용태도 <대구대 교육대학원>	연령:연령이 많을수록 더 수용적 성별:여아가 남아보다 더 수용적 경험:경험이 없는 아동이 더 수용	통합을 시간·공간 통합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 장애 학생의 능력개발지원 제안
김영성 (1999)	통합교육에 따른 일반학급 아동의 특수학급 아동에 대한 수용태도 <영남대 교육대학원>	학년: 고학년이 더 거부적이었음 성별: 남녀모두 배척, 여아가 남아보다 더 수용적 경험:경험이 있는 아동이 더 수용적	학급당 정원의 소수화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에 대한 보상강화, 교육대학에서 특수교육교과목 신설 및 시간 확대
박미란 (2000)	통합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중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비교 <우석대 교육대학원>	경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더 수용 경험시기: 초등학교 때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더 수용적	조기통합교육 및 일반학교에서의 특수학급 확대 제안
김동준 (2000)	경도 정신지체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수용태도 연구 <대구대 교육대학원>	학년: 전체적으로는 중간수준 이하 저학년이 더 수용적 성별: 여자아동이 더 수용적	학년간의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여러 연구간에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음. 세밀한 연구의 필요
이혜숙 (2003)	통합교육상황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중학생의 태도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학년 : 고학년일수록 장애학생 고립 성별:남학생이 긍정적 수용 경험: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편견이 더 낮았음	학력면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소외되는 경향발생, 이에 대한 대책 요구되며,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이 요구됨



연구자 (년도)	연구주제 <소속>	연구결과	문제점
송말순 (2003)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학생의 수용태도 <영남대 교육대학원>	성별 : 여학생이 더 긍정적 학교급별 : 초등학생이 더 긍정적 수용 경험 :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경험이 없을수록 더 긍정적 수용	일반학생을 '또래지원촉진자'로 활용하는 방안 제안
송진중 (2005)	중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 연구 <조선대 교육대학원>	학년:학년이 높을수록 더 부정적 경험:경험이 있는 학생이 더 부정적 통합학급소속: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더 부정적 수용	학년이 높을수록, 경험이 있을수록 더 부정적, 장애이해교육의 필요성 제안

이 외에도 일반아동의 장애아동 수용태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같이 각 변인들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통합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는 아동들의 경우 장애아동 수용태도에 있어서도 일부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경험이 있는 아동들이 더 수용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또 다른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경험이 없는 아동들의 더 수용적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연구결과에 일관성이 없었다. 일반아동의 성별에 따른 수용태도 연구에서는 이은주(1995)와 이혜숙(2003)의 연구에서는 남자아동들이 더 수용적이었다는 결과가 나온 반면 김영성(1999), 김동준(2000), 송말순(2003)의 연구에서는 여자아동들의 수용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일관성이 없었으며, 학년에 따른 수용태도에서는 고학년의 경우 장애아동이 고립되거나 거부당하는 등 수용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송진중(2005)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현재 통합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부정적 수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장애 남·녀 아동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수용태도가 4가지 배경변인(통합학급 소속 유·무, 통합교육 경험 유·무, 학년별, 성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일반아동들의 특수교육대상아동에 대한 수용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거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합학급이 있는 전라남도 소재 초등학교의 일반학급과 통합학급의 남, 녀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이나 시·군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10개교를 고루 선택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전체 320부를 배부하였으며 306부를 회수하여 95.63%의 회수율을 보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설문 응답이 미숙하여 기재가 무성의 한 설문지 20부를 제외한 28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의 배경변인별 분포현황은 다음 표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설문지의 배경 변인별 분포 현황

<단위 : 명>

구 분		배부된 설문지	회수된 설문지	회수율 (%)	분석사용설문지	분석사용비율 (%)
현 소속	통합	160	150	93.75	130	86.67
	일반	160	156	97.50	156	100.00
	계	320	306	95.63	286	93.46
성별	남	160	152	95.00	140	92.11
	여	160	154	96.25	146	94.81
	계	320	306	95.63	286	93.46
소속 학년	중학년(3,4년)	160	153	95.63	144	94.12
	고학년(5,6년)	160	153	95.63	142	92.81
	계	320	306	95.63	286	93.46
통합경험	통합경험(유)	160	155	96.88	151	97.42
	통합경험(무)	160	151	94.38	135	89.40
	계	320	306	95.63	286	93.46

## 2.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김정호(1990)의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일반 동료들의 수용 태도에 관한 일 연구'에서 사용한 정의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형용사 척도(adjective checklist)' 설문지(부록 참조)로서 Barron(1953)과 Gough(1952)의 초기의 성격 연구에서 다룬 '자아 성격척도(self-characterization)'에서의 형용사(adjective)를 사용한 척도에서 채용한 개념이다. 이 척도는 원하는 만큼 특징적인 형용사를 택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선택형'이 아닌 '자유응답형(open ended)' 척도이다. 형용사 척도는 아동이 좋거나 싫은 다른 동료에 대하여 서술하는 감정(affective), 신체적외양(apperance), 학업적 행동(academic behavior), 사회적 행동(social behavior)을 묘사하는 32가지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Positive), 부정적(negative)용어가 절반씩 포함된다.

채점방식은 형용사 하나를 1점씩 할당하여, 긍정적 형용사-부정적 형용사+상수 20점으로 계산하므로, 20점 이상은 '긍정적', 20점미만은 '부정적' "평정이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2>의 내용과 같다.

<표 III-2> 형용사 척도 용어

구 분	형용사 척도에 사용된 용어			
	긍정적(Positive)용어	개수	부정적(negative)용어	개수
학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부를 잘 한다.</li> <li>▪ 머리가 좋다.</li> <li>▪ 영리하다.</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부를 못 한다.</li> <li>▪ 이해가 느리다.</li> <li>▪ 바보스럽다.</li> </ul>	3
신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씩씩하고 건강하다.</li> <li>▪ 복장이 단정하다.</li> <li>▪ 잘 생겼다.</li> <li>▪ 깔끔하다.</li> <li>▪ 민첩하다.</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둔하다.</li> <li>▪ 단정하지 못하다.</li> <li>▪ 못 생겼다.</li> <li>▪ 몸이 허약하다.</li> <li>▪ 지저분하다.</li> </ul>	5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과 잘 어울린다.</li> <li>▪ 부지런하다.</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으르다.</li> <li>▪ 외톨이다.</li> </ul>	2
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꿈하다.</li> <li>▪ 행복하다.</li> <li>▪ 솔직하다.</li> <li>▪ 인정이 있다.</li> <li>▪ 발랄하다.</li> <li>▪ 즐겁다</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주의하다.</li> <li>▪ 거짓말을 잘 한다.</li> <li>▪ 발랄하다.</li> <li>▪ 불행하다.</li> <li>▪ 이기적이다.</li> <li>▪ 슬프게 보인다.</li> </ul>	6
소계		16		16
총계	총 32			

### 3. 연구 절차

이 연구의 조사는 2008년 1학기 6월 중순에서 7월 초에 이루어졌다. 설문지 배포 대상자는 전라남도 소재 초등학교 10개교를 선택하여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시·군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학급과 일반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0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처리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처리에 있어서 형용사 하나를 1점씩 할당하고, 긍정적 형용사-부정적 형용사 +20(상수)으로 계산하여 20점 이상은 '긍정적', 20점 미만은 '부정적'평정이 되는데, 장애 여자아동과 남자아동에 대한 결과 차를 비교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형용사적 수용척도를 비교하여  $\chi^2$ 검증을 하였다.

## IV. 연구결과

초등학교 일반아동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가 배경 변인(통합학급 소속 유·무, 통합교육 경험 유·무, 학년별, 성별)별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장애아동 수용태도 비교

초등학교 일반아동들의 장애아동 수용태도 비교 연구에서 현재 통합학급 소속 유·무가 초등학교 일반아동들의 장애아동 수용태도(학업관련, 신체적 외양, 사회적 행동, 감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학업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초등학교 일반아동들의 현재 통합학급 유·무가 장애아동들의 학업과 관련된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 IV-1>과 같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남자아동에 대한 현재 통합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20.8%이고, 소속되어 있지 않은 아동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25.0%로서 유의확률 .398로 유의한 차이를 없었으며, 장애여자아동의 경우에는 소속되어 있는 일반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15.4%,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일반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25.6%로서 현재 통합학급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일반아동들이 소속되어 있는 일반아동보다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유의확률 .034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1>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학업관련 수용태도 비교

수용대상	범 주		행동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장애아동 (남)	소속되어 있음	빈도	27	103	130	.715	.398
		범주의 %	20.8%	79.2%	100.0%		
	소속되어 있지 않음	빈도	39	117	156		
		범주의 %	25.0%	75.0%	100.0%		
장애아동 (여)	소속되어 있음	빈도	20	110	130	4.500	.034*
		범주의 %	15.4%	84.6%	100.0%		
	소속되어 있지 않음	빈도	40	116	156		
		범주의 %	25.6%	74.4%	100.0%		

\*p < .05

## 나. 신체적 외양과 관련된 수용 비교

통합학급 경험 유·무가 장애아동의 신체적 외양에 대한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표 IV-2>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남자아동에 대한 현재 통합학급 소속 일반아동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34.6%, 무소속 일반아동의 경우 긍정적 수용척도가 39.7%로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유의확률 .372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는 없었으며, 장애여자아동의 경우 역시 유의확률 .775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신체적 외양 수용태도 비교

수용대상	범 주		형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장애아동 (남)	소속되어 있음	빈도	45	85	130	.796	.372
		범주의 %	34.6%	65.4%	100.0%		
	소속되어있지 않음	빈도	62	94	156		
		범주의 %	39.7%	60.3%	100.0%		
장애아동 (여)	소속되어 있음	빈도	52	78	130	.081	.775
		범주의 %	40.0%	60.0%	100.0%		
	소속되어있지 않음	빈도	65	91	156		
		범주의 %	41.7%	58.3%	100.0%		

## 다.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사회적 행동에 대한 수용에서는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합학급에 소속된 일반아동의 장애남자아동에 대한 긍정적 수용척도가 54.6%인데 반해 통합학급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아동의 긍정적 수용척도는 38.5%로 현재 통합학급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현저히 낮아 유의확률 .006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장애여자아동에 대한 통합학급소속 일반아동의 긍정적 수용 57.7%이고, 통합학급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아동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41.0%로 장애남자아동의 경우와 같은 현상을 보였으며 이 경우 또한 유의확률 .00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표 IV-3〉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사회적 행동 수용태도 비교

수용대상	범 주		형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장애아동 (남)	소속되어 있음	빈도	71	59	130	7.454	.006*
		범주의 %	54.6%	45.4%	100.0%		
	소속되어있지 않음	빈도	60	96	156		
		범주의 %	38.5%	61.5%	100.0%		
장애아동 (여)	소속되어 있음	빈도	75	55	130	7.885	.005*
		범주의 %	57.7%	42.3%	100.0%		
	소속되어있지 않음	빈도	64	92	156		
		범주의 %	41.0%	59.0%	100.0%		

\* p < .05

#### 라. 감정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표 IV-3〉을 보면 장애아동의 감정에 대한 수용에서는 장애남·녀에 상관없이 통합학급 소속되어 있는 일반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통합학급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일반아동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표 IV-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장애아동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일반아동들의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4〉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감정 수용태도 비교

수용대상	범 주		형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장애아동 (남)	소속되어 있음	빈도	69	61	130	.539	.463
		범주의 %	53.1%	46.9%	100.0%		
	소속되어있지 않음	빈도	76	80	156		
		범주의 %	48.7%	51.3%	100.0%		
장애아동 (여)	소속되어 있음	빈도	75	55	130	2.292	.130
		범주의 %	57.7%	42.3%	100.0%		
	소속되어있지 않음	빈도	76	80	156		
		범주의 %	48.7%	51.3%	100.0%		

## 2.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아동 수용태도 비교

일반아동들의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아동들의 학업관련, 신체적 외양, 사회적 행동, 감정에 대한 수용태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 가. 학업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통합학급 경험 유·무가 장애아동들의 학업과 관련된 수용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한 결과 <표 IV-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장애아동의 학업적 행동에 대해 통합학급 경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아주 부정적 수용을 하고는 있으나 장애남자아동의 경우 통합학급 경험이 있는 일반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19.2%, 통합학급 경험이 없는 일반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27.4%로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 유의확률 .100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장애여자아동의 경우 통합학급 경험이 있는 일반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14.6%, 통합학급 경험이 없는 일반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28.1%였으며, 유의확률 .005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표 IV-5 >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학업관련 수용태도 비교

수용대상	범 주		행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장애아동 (남)	경험 있음	빈도	29	122	151	2.701	.100
		범주의 %	19.2%	80.8%	100.0%		
	경험 없음	빈도	37	98	135		
		범주의 %	27.4%	72.6%	100.0%		
장애아동 (여)	경험 있음	빈도	22	129	151	7.927	.005*
		범주의 %	14.6%	85.4%	100.0%		
	경험 없음	빈도	38	97	135		
		범주의 %	28.1%	71.9%	100.0%		

\* p < .05

### 나. 신체적 외양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일반아동들의 통합학급 경험 유·무가 장애아동들의 신체적 외양에 대한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 쪽의 <표 IV-6>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학급



경험이 있는 일반아동의 장애남자아동에 대한 긍정적 수용척도가 38.4%, 통합학급 경험이 없는 일반아동의 장애남자아동에 대한 긍정적 수용척도는 36.3%로 유의확률 .712로 유의미한 차이가 안 보였다.

<표 IV-6>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신체적 외양 수용태도 비교

수용대상	범 주		행동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장애아동 (남)	경험 있음	빈도	58	93	151	.136	.712
		범주의 %	38.4%	61.6%	100.0%		
	경험 없음	빈도	49	86	135		
		범주의 %	36.3%	63.7%	100.0%		
장애아동 (여)	경험 있음	빈도	62	89	151	.003	.956
		범주의 %	41.1%	58.9%	100.0%		
	경험 없음	빈도	55	80	135		
		범주의 %	40.7%	59.3%	100.0%		

#### 다.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표 IV-7>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아동들의 통합학급 경험 유·무와 장애아동들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수용을 살펴보면 통합학급경험이 있는 아동들의 장애남자아동들에 대한 수용을 보면 긍정적 수용척도가 46.44%이고 통합학급경험이 없는 아동들의 경우 장애남자아동들에 대한 긍정적 수용척도가 45.2%로서 유의확률 .843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장애여자아동의 경우에는 통합학급을 경험한 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55.01%인데 비해 통합학급 경험이 없는 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48.6%로서 유의확률 .023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7>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적 행동 수용태도 비교

수용대상	범 주		행동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장애아동 (남)	경험 있음	빈도	70	81	151	.039	.843
		범주의 %	46.44%	53.6%	100.0%		
	경험 없음	빈도	61	74	135		
		범주의 %	45.2%	54.87%	100.0%		
장애아동 (여)	경험 있음	빈도	83	68	151	5.189	.023*
		범주의 %	55.01%	45.0%	100.0%		
	경험 없음	빈도	56	79	135		
		범주의 %	48.6%	51.4%	100.0%		

\*p < .05

## 라. 감정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통합학급경험 유·무가 장애아동들의 감정에 대한 수용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다음 쪽의 <표 IV-8>에서 볼 수 있듯이 특수학급경험이 있는 일반아동들을 긍정적 수용척도가 부정적 수용척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특수학급 경험이 없는 일반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부정적 수용척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확률이 각각 .280, .0762로서 유의미한 차이는 안 보였다.

<표 IV-8>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감정 수용태도 비교

수용대상	범 주	형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장애아동 (남)	경험 있음	빈도	72	79	151	1.165	.280
		범주의 %	47.7%	52.3%	100.0%		
	경험 없음	빈도	73	62	135		
		범주의 %	54.1%	45.9%	100.0%		
장애아동 (여)	경험 있음	빈도	81	70	151	.092	.762
		범주의 %	53.6%	46.40%	100.0%		
	경험 없음	빈도	70	65	135		
		범주의 %	51.9%	48.1%	100.0%		

## 3. 학년 수준에 따른 장애아동 수용태도 비교

일반아동들의 학년수준에 따라 장애아동들을 학업, 신체, 학년, 성별에 따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분석 하였다.

### 가. 학업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표 IV-9>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아동들의 학년수준에 따른 수용태도를 분석한 결과 장애남자아동에 대한 중학년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26.4%, 고학년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19.7%로 중학년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확연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유의확률이 .181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장애여자아동에 대한 중학년의 긍정적 척도 23.6%, 고학년의 긍정적 척도가 18.3%로 장애여자아동의 경우 역시 중학년의 긍정적 척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여자아동의 경우 역시 유의확률 .271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V-9〉 학년 수준에 따른 학업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수용대상	범 주		행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장애아동 (남)	중학년(3,4학년)	빈도	38	106	144	1.792	.181
		범주의 %	26.4%	73.6%	100.0%		
	고학년(5,6학년)	빈도	28	114	142		
		범주의 %	19.7%	80.3%	100.0%		
장애아동 (여)	중학년(3,4학년)	빈도	34	110	144	1.212	.271
		범주의 %	23.6%	76.4%	100.0%		
	고학년(5,6학년)	빈도	26	116	142		
		범주의 %	18.3%	81.7%	100.0%		

#### 나. 신체적 외양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학년 수준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신체적 외양의 수용태도를 살펴보면 <표 IV-10>에 볼 수 있듯이 장애남자아동에 대한 중학년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41.0%, 고학년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33.87%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유의확률 .210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장애여자아동의 경우 중학년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40.3%, 고학년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41.5%이며, 유의확률 .827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0〉 학년 수준에 따른 신체적 외양 수용태도 비교

수용대상	범 주		행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장애아동 (남)	중학년(3,4학년)	빈도	59	85	144	1.569	.210
		범주의 %	41.0%	59.0%	100.0%		
	고학년(5,6학년)	빈도	48	94	142		
		범주의 %	33.87%	66.2%	100.0%		
장애아동 (여)	중학년(3,4학년)	빈도	58	86	144	.048	.827
		범주의 %	40.3%	59.7%	100.0%		
	고학년(5,6학년)	빈도	59	58.5	142		
		범주의 %	41.5%	81.7.5%	100.0%		

## 다.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학년수준에 따른 장애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수용을 조사한 결과 <표 IV-11>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남자아동에 대한 중학년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45.8%, 고학년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45.8%로서 전혀 차이가 없었으며, 유의확률 .992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장애여자아동의 경우 역시 중학년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43.1%, 고학년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54.2%이며, 유의확률 .059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1> 학년 수준에 따른 사회적 행동 수용태도 비교

수용대상	범 주		행동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장애아동 (남)	중학년(3,4학년)	빈도	66	78	144	.000	.992
		범주의 %	45.8%	54.2%	100.0%		
	고학년(5,6학년)	빈도	65	77	142		
		범주의 %	45.8%	54.2%	100.0%		
장애아동 (여)	중학년(3,4학년)	빈도	62	82	144	3.571	.059
		범주의 %	43.1%	56.9%	100.0%		
	고학년(5,6학년)	빈도	77	65	142		
		범주의 %	54.2%	45.8%	100.0%		

## 라. 감정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일반아동들의 학년수준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감정 수용을 조사한 결과 <표 IV-12>와 같으며, 중학년의 장애남자아동에 대한 긍정적 수용척도가 52.8%, 고학년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48.6%로서 척도에 차이는 있으나 유의확률 .479로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장애여자아동에 대한 감정수용은 중학년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48.6%, 고학년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57.0%로 많은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유의확률 .153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

<표 IV-12> 학년 수준에 따른 감정 수용태도 비교

수용대상	범 주		형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장애아동 (남)	중학년(3,4학년)	빈도	76	68	144	.051	.479
		범주의 %	52.8%	47.2%	100.0%		
	고학년(5,6학년)	빈도	69	73	142		
		범주의 %	48.6%	51.4%	100.0%		
장애아동 (여)	중학년(3,4학년)	빈도	70	74	144	2.039	.153
		범주의 %	48.6%	51.49%	100.0%		
	고학년(5,6학년)	빈도	81	61	142		
		범주의 %	57.0%	43.0%	100.0%		

#### 4. 성별에 따른 장애아동 수용태도 비교

일반아동의 성별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학업, 신체, 사회, 감정 수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 가. 학업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일반아동들의 성별에 따라서 장애아동들의 학업적 행동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표 IV-13>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남자아동에 대한 일반남자아동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23.6%, 일반여자아동의 긍정적 수용척도는 22.6%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유의확률은 .846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장애여자아동의 경우 일반남자아동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15.0%, 일반여자아동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26.7%로서 일반여자아동들이 장애여자아동에 대해 긍정적 수용을 하고 있으며, 유의확률 .015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13> 성별에 따른 학업 관련 수용태도 비교

수용대상	범 주		형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장애아동 (남)	일반아동(남)	빈도	33	107	140	.038	.846
		범주의 %	23.6%	76.4%	100.0%		
	일반아동(여)	빈도	33	113	146		
		범주의 %	22.6%	77.4%	100.0%		
장애아동 (여)	일반아동(남)	빈도	21	119	144	5.914	.015*
		범주의 %	15.0%	85.0%	100.0%		
	일반아동(여)	빈도	39	107	142		
		범주의 %	26.7%	73.3%	100.0%		

\*p< .05

## 나. 신체적 외양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일반아동들의 성별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신체적 외양에 대한 수용태도를 비교한 결과 <표 IV-14>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남자아동에 대한 일반남자아동의 긍정적 수용척도는 37.1%, 일반여자아동의 긍정적 수용척도는 37.7%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의확률 .926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장애여자 아동의 경우 일반남자아동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40.0%, 일반여자아동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41.8%로서 장애남자아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의확률 .759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4> 성별에 따른 신체적 외양 수용태도 비교

수용대상	범 주		형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장애아동 (남)	일반아동(남)	빈도	52	88	140	.009	.926
		범주의 %	37.1%	62.9%	100.0%		
	일반아동(여)	빈도	55	91	146		
		범주의 %	37.7%	62.3%	100.0%		
장애아동 (여)	일반아동(남)	빈도	56	84	140	.094	.759
		범주의 %	40.0%	60.0%	100.0%		
	일반아동(여)	빈도	61	85	146		
		범주의 %	41.8%	58.2%	100.0%		

## 다.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일반아동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행동에 대한 수용태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 IV-15>과 같으며, 장애남자아동에 대한 일반남자아동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47.1%, 일반여자아동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44.5%로 일반남자아동으로 유의확률 .656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장애여자아동에 대한 일반남자아동의 긍정적 수용척도는 48.6%, 일반여자아동의 긍정적 수용척도 역시 48.6%로서 전혀 차이가 없으며, 유의확률 .992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5〉 성별에 따른 사회적 행동 수용태도 비교

수용대상	범 주		형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장애아동 (남)	일반아동(남)	빈도	66	74	140	.198	.656
		범주의 %	47.1%	52.9%	100.0%		
	일반아동(여)	빈도	65	81	146		
		범주의 %	44.5%	55.5%	100.0%		
장애아동 (여)	일반아동(남)	빈도	68	72	140	.000	.992
		범주의 %	48.6%	51.4%	100.0%		
	일반아동(여)	빈도	61	85	146		
		범주의 %	48.6%	51.4%	100.0%		

#### 라. 감정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일반학생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감정 수용은 <표 IV-16>와 같으며 장애남자아동에 대한 일반남자아동의 긍정적 수용척도는 49.3%, 일반여자아동의 긍정적 수용척도는 52.1%로 일반여자아동의 경우 수용척도가 약간 높으나 유의확률 .64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장애여자아동의 경우 역시 일반남자아동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51.4%, 일반여자아동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54.1%로 일반여자아동의 긍정적 척도가 약간 높으나 유의확률 .65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6〉 성별에 따른 감정 수용 비교

수용대상	범 주		형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장애아동 (남)	일반아동(남)	빈도	69	71	140	.219	.640
		범주의 %	49.3%	50.7%	100.0%		
	일반아동(여)	빈도	76	70	146		
		범주의 %	52.1%	47.9%	100.0%		
장애아동 (여)	일반아동(남)	빈도	72	68	140	.206	.650
		범주의 %	51.4%	48.6%	100.0%		
	일반아동(여)	빈도	79	67	146		
		범주의 %	54.1%	45.9%	100.0%		

## 5. 통합학급 소속 유·무와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 아동 수용태도 비교

현재 통합학급 소속 유·무와 과거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아동 수용태도를 학업, 신체적 외양, 사회, 감정으로 나누어 조사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가. 통합학급에 소속된 아동들의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

통합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아동들의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아동 수용태도를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통합경험이 있는 아동에 비해 통합경험이 없는 아동들의 수용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범주별로 자세히 알아본 결과는 아래의 내용과 같다.

#### (1) 학업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통합학급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아동 수용태도를 알아본 결과 아래 <표 IV-17>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일반아동들은 장애아동들의 학업과 관련된 수용태도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 수용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장애 남·녀에 구분 없이 통합경험이 있는 아동에 비해 경험이 없는 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높았으며, 장애남자아동의 경우 유의확률 .078, 장애여자아동의 경우 유의확률 .097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7> 통합학급 이동의 통합 경험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학업면)

범 주			형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통합 학급	장애아동(남)	경험 유	빈도	14	72	86	3.113	.078
			범주의 %	16.3%	83.7%			
	경험 무	빈도	13	31	86			
		범주의 %	29.5%	70.5%	100.0%			
장애아동(여)	경험 유	경험 유	빈도	10	76	86	2.755	.097
			범주의 %	11.6%	88.4%			
	경험 무	빈도	10	34	44			
		범주의 %	22.7%	77.3%	100.0%			



(2) 신체적 외양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표 IV-18>에서 볼 수 있듯이 긍정적 수용척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부정적 수용척도가 높았으며, 통합학급 경험이 없는 경우에 긍정적 수용척도가 높게 나타났다. 장애남자아동의 경우 유의확률 .281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장애여자아동의 경우 유의확률 .041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18 > 통합학급 아동의 통합경험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신체적 외양)

범 주			형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통합 학급	장애아동(남)	경험 유	빈도	27	59	86	1.164	.281
			범주의 %	31.4%	68.6%	100.0%		
	경험 무	빈도	18	26	44			
		범주의 %	40.9%	59.1%	100.0%			
장애아동(여)	경험 유	빈도	29	57	86	4.174	.041*	
		범주의 %	33.7%	66.3%	100.0%			
	경험 무	빈도	23	21	44			
		범주의 %	52.3%	47.7%	100.0%			

\*p< .05

(3)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장애아동들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수용태도는 <표 IV-19>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 남·녀 아동 모두 긍정적 척도가 50%를 넘고 있었다.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통합경험이 없는 아동들이 경험이 있는 아동에 비해 긍정적 수용척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남자아동의 경우 유의확률 .269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장애여자아동의 경우에도 유의확률 .885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9 > 통합학급 아동의 통합경험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사회적 행동)

범 주			형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통합 학급	장애아동(남)	경험 유	빈도	44	42	86	1.222	.269
			범주의 %	51.2%	48.8%	100.0%		
	경험 무	빈도	27	17	44			
		범주의 %	61.4%	38.6%	100.0%			
장애아동(여)	경험 유	빈도	50	36	86	.021	.885	
		범주의 %	58.1%	41.9%	100.0%			
	경험 무	빈도	25	19	44			
		범주의 %	56.8%	43.2%	100.0%			

(4) 감정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장애아동들의 감정에 대한 수용태도의 경우 <표 IV-20>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경험이 있는 아동들에 비해 통합경험이 없는 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높았으며, 긍정적 수용척도가 60~70%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장애남자아동의 경우 유의확률 .036, 장애여자아동의 경우 유의확률 .035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IV-20 > 통합학급 아동의 통합 경험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감정)

범 주			행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통합 학급	장애아동(남)	경험 유	빈도	40	46	86	4.397	.036*
			범주의 %	46.5%	53.5%	100.0%		
	경험 무	빈도	29	15	44			
		범주의 %	65.9%	34.1%	100.0%			
장애아동(여)	경험 유	경험 유	빈도	44	42	86	4.438	.035*
			범주의 %	51.2%	48.8%	100.0%		
	경험 무	빈도	31	13	44			
		범주의 %	70.5%	29.5%	100.0%			

\*p< .05

나.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아동 수용태도 비교

(1) 학업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학업과 관련된 수용태도에서는 <표 IV-21>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학급 경험이 없는 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약간 높았다. 장애남자아동에 대한 수용태도에서는 유의확률 .639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장애여자아동의 경우 유의확률 .083으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 21 > 통합경험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학업면)

범 주			행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일반 학급	장애아동(남)	통합경험 유	빈도	15	50	65	.220	.639
			범주의 %	23.1%	76.9%	100.0%		
	통합경험 무	빈도	24	67	91			
		범주의 %	26.4%	73.6%	100.0%			
장애아동(여)	통합경험 유	통합경험 유	빈도	12	53	65	3.012	.083
			범주의 %	18.5%	81.5%	100.0%		
	통합경험 무	빈도	28	63	91			
		범주의 %	30.8%	69.2%	100.0%			

(2) 신체적 외양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아동의 신체적 외양에 대한 수용에서는 <표 IV-22>와 같았으며, 학업과 관련된 수용에서와는 달리 긍정적 수용척도가 높은 편이었고, 현 통합학급 소속 학생들의 조사에서와는 달리 통합학급 경험이 있는 아동들의 경우에 긍정적 수용척도가 높게 나타났다. 장애남자아동의 경우 유의확률 .086으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장애여자아동의 경우도 유의확률 .051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2> 통합경험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신체적 외양)

범 주			형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일반 학급	장애아동(남)	통합경험 유	빈도	31	34	65	2.940	.086
			범주의 %	47.7%	52.3%	100.0%		
	통합경험 무	빈도	31	60	91			
		범주의 %	34.1%	65.9%	100.0%			
장애아동(여)	통합경험 유	빈도	33	32	65	3.799	.051	
		범주의 %	50.8%	49.29%	100.0%			
	통합경험 무	빈도	32	59	91			
		범주의 %	35.2%	64.8%	100.0%			

(3)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표 IV-23>을 보면 일반학급 아동들의 경우, 장애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수용태도에서도 신체적 외양에서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수용척도와 부정적 수용척도에 사이에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통합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통합경험이 있는 경우가 통합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긍정적 수용척도가 높았으며, 장애남자아동의 경우 유의확률 .739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장애여자아동의 경우에는 유의확률 .037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장애여자아동의 경우에 50.8%의 아동들이 긍정적 수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 23 > 통합경험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사회적 행동)

범 주			형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일반 학급	장애아동(남)	통합경험 유	빈도	26	39	65	.111	.739
			범주의 %	40.0%	60.0%	100.0%		
		통합경험 무	빈도	34	57	91		
			범주의 %	37.4%	62.6%	100.0%		
	장애아동(여)	통합경험 유	빈도	33	32	65	4.372	.037*
			범주의 %	50.8%	49.2%	100.0%		
통합경험 무		빈도	31	60	91			
		범주의 %	34.1%	65.9%	100.0%			

\*p< .05

(4) 감정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장애아동의 감정과 관련된 수용태도에서도 <표 IV-24>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체적 외양에서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수용척도와 부정적 수용척도 사이에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통합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통합경험이 있는 경우가 통합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긍정적 수용척도가 높았다. 장애남자아동의 경우 유의확률 .914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장애여자아동의 경우에도 유의확률 .083으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장애여자아동의 경우에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수용태도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수용척도에 비해 긍정적 수용척도가 높았으며, 56.9%의 아동들이 긍정적 수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일반학급 아동의 통합 경험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감정)

범 주			형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일반 학급	장애아동(남)	통합경험 유	빈도	32	33	65	.012	.914
			범주의 %	49.2%	50.8%	100.0%		
		통합경험 무	빈도	44	47	91		
			범주의 %	48.4%	51.6%	100.0%		
	장애아동(여)	통합경험 유	빈도	37	28	65	3.003	.083
			범주의 %	56.9%	43.1%	100.0%		
통합경험 무		빈도	39	52	91			
		범주의 %	42.9%	57.1%	100.0%			

## 다. 통합학급 경험이 있는 아동들의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

통합학급 경험이 있는 아동들의 경우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에서 현재 통합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보다는 소속되어 있지 않은 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높았으나, 통합학급 경험이 없는 아동들의 경우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에서 현재 통합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의 경에 긍정적 수용척도가 높게 나타났다.

### (1) 학업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표 IV-25>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학급 경험이 있는 아동들의 경우 장애아동의 학업과 관련된 수용태도에서 긍정적 수용척도가 10%~20%로 극히 낮은 수용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현재 통합학급에 소속되지 않은 아동들의 경우 긍정적 수용척도가 높았다.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장애남자아동의 경우 유의확률 .294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장애여자아동의 경우에도 유의확률 .239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5 > 경험이 있는 아동의 통합학급 소속 유 · 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학업면)

범 주			행동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통합 경험 있음	장애아동(남)	통합학급소속	빈도	14	72	86	1.102	.294		
		유	범주의 %	16.3%	83.7%	100.0%				
		통합학급소속	빈도	15	50	65				
	무	범주의 %	23.1%	76.9%	100.0%					
	장애아동(여)	통합학급소속	빈도	10	76	86			1.389	.239
		유	범주의 %	11.6%	88.4%	100.0%				
통합학급소속		빈도	12	53	91					
무	범주의 %	18.5%	81.5%	100.0%						

### (2) 신체적 외양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통합학급 경험이 있는 아동들의 경우 장애아동의 신체적 외양과 관련된 수용태도에서는 <표 IV-26>에서 볼 수 있듯이 학업과 관련된 수용태도에서와는 달리 긍정적 수용척도가 50%~50%사이에 분포되고 있다.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차이에 있

어서는 현재 통합학급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아동들의 경우 긍정적 수용척도가 높았으며, 장애남자아동의 경우 유의확률 .041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장애여자아동의 경우에도 유의확률 .035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26> 통합경험이 있는 이동의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신체적 외양)

범 주			형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통합 경험 있음	장애아동(남)	통합학급소속	빈도	27	59	86	4.156	.041*
		유	범주의 %	31.4%	68.6%	100.0%		
		통합학급소속	빈도	31	34	65		
		무	범주의 %	47.71%	52.3%	100.0%		
	장애아동(여)	통합학급소속	빈도	29	57	86	4.446	.035*
		유	범주의 %	33.7%	66.3%	100.0%		
통합학급소속		빈도	33	32	91			
무		범주의 %	50.8%	49.2%	100.0%			

\*p < .05

### (3)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통합학급 경험이 있는 아동들의 경우 <표 IV-27>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수용태도에서는 학업이나 신체적 외양과는 달리 긍정적 수용척도가 40%~6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현재 통합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의 경우 긍정적 수용척도가 높았다.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장애남자아동의 경우 유의확률 .173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장애여자아동의 경우에도 유의확률 .367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7 > 경험이 있는 아동의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사회적 행동)

범 주			형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통합 경험 있음	장애아동(남)	통합학급소속	빈도	44	42	86	1.855	.173
		유	범주의 %	51.2%	48.8%	100.0%		
		통합학급소속	빈도	26	39	65		
		무	범주의 %	40.0%	60.0%	100.0%		
	장애아동(여)	통합학급소속	빈도	50	36	86	.812	.367
		유	범주의 %	58.1%	41.9%	100.0%		
통합학급소속		빈도	33	32	91			
무		범주의 %	50.8%	49.2%	100.0%			

(4) 감정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표 IV-28>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학급 경험이 있는 아동들의 경우 장애아동의 감정과 관련된 수용태도에서 긍정적 수용척도가 46%~57%로 상당히 높은 긍정적 수용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현재 통합학급에 소속되지 않은 아동들의 경우 긍정적 수용척도가 근소한 차이로 높았다. 그러나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장애남자아동의 경우 유의확률 .740으로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장애여자아동의 경우에도 유의확률 .482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8> 경험이 있는 아동의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감정)

범 주			형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통합 경험 있음	장애아동(남)	통합학급소속	빈도	40	46	86	.110	.740
		유	범주의 %	46.5%	53.5%	100.0%		
	통합학급소속	빈도	32	33	65			
	무	범주의 %	49.2%	50.8%	100.0%			
장애아동(여)	통합학급소속	빈도	44	42	86	.494	.482	
	유	범주의 %	51.2%	48.8%	100.0%			
	통합학급소속	빈도	37	28	91			
	무	범주의 %	56.9%	43.1%	100.0%			

라. 통합학급 경험이 없는 아동들의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

통합학급 경험이 없는 아동들의 경우 장애아동의 학업에 대한 수용태도에서 현재 통합학급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 긍정적 수용척도가 높았으나 나머지 신체적 외양, 사회적 행동, 감정 학업과 관련된 수용태도에서는 현재 통합학급에 소속된 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현재 소속되어있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1) 학업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통합학급 경험이 없는 아동들의 경우 <표 IV-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아동의 학업과 관련된 수용태도에서 긍정적 수용척도가 15%~30%사이의 낮은 척도를 보여, 장애아동의

학업과 관련하여 일반아동들의 부정적 수용태도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었으며, 현재 통합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의 경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아동들보다 긍정적 수용척도가 매우 낮았다. 그러나 장애남자아동의 경우 유의확률 .699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장애여자아동의 경우에도 유의확률 .33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9> 경험이 없는 아동의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학업면)

범 주			행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통합 경험 있음	장애아동(남)	통합학급소속	빈도	13	31	44	.150	.699
		유	범주의 %	16.3%	83.7%	100.0%		
	통합학급소속	빈도	24	67	91			
	무	범주의 %	26.4%	73.6%	100.0%			
통합 경험 없음	장애아동(여)	통합학급소속	빈도	10	34	44	.948	.330
		유	범주의 %	22.7%	77.3%	100.0%		
	통합학급소속	빈도	28	63	91			
	무	범주의 %	30.8%	69.2%	100.0%			

(2) 신체적 외양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통합학급 경험이 없는 아동들의 경우 <표 IV-30>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아동의 신체적 외양과 관련된 수용태도에서는 학업과 관련한 수용태도와는 달리 현재 통합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30%~50%사이로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남자아동의 경우 유의확률 .438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장애여자아동의 경우 역시 유의확률 .058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30> 경험이 없는 아동의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신체적 외양)

p < .05

범 주			행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통합 경험 있음	장애아동(남)	통합학급소속	빈도	18	26	44	601	.438
		유	범주의 %	40.9%	59.1%	100.0%		
	통합학급소속	빈도	31	60	91			
	무	범주의 %	34.1%	65.9%	100.0%			
통합 경험 없음	장애아동(여)	통합학급소속	빈도	23	21	44	3.596	.058
		유	범주의 %	52.3%	47.7%	100.0%		
	통합학급소속	빈도	32	59	91			
	무	범주의 %	35.2%	64.8%	100.0%			



(3)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통합학급 경험이 없는 아동들의 <표 IV-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우 장애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수용태도에서는 신체적 외양과 관련한 수용태도 보다 긍정적 수용척도가 약간 높게 나왔으며 그 범주는 32%~62%사이로 상당히 높은 척도를 나타냈다. 특히 현재 통합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의 장애남자아동에 대한 긍정적 수용척도가 높았으며, 유의확률 .009로서 아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여자아동의 경우 역시 현재 통합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의 긍정적 척도가 월등히 높았으며, 유의확률 .012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IV-31> 경험이 없는 아동의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사회적 행동)

범 주			형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통합 경험 없음	장애아동(남)	통합학급소속	빈도	27	17	44	6.898	.009
		유	범주의 %	61.4%	38.6%	100.0%		
	통합학급소속	빈도	34	57	91			
		무	범주의 %	37.4%	62.6%	100.0%		
통합 경험 있음	장애아동(여)	통합학급소속	빈도	25	19	44	6.325	.012
		유	범주의 %	56.8%	43.2%	100.0%		
	통합학급소속	빈도	31	60	91			
		무	범주의 %	34.1%	65.9%	100.0%		

\*p < .05

(4) 감정과 관련된 수용태도 비교

통합학급 경험이 없는 아동들의 경우 <표 IV-32>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아동의 감정과 관련된 수용태도에서는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수용태도 보다 긍정적 수용척도가 약간 높게 나왔으며 그 범주는 42%~72%사이로 상당히 높은 수용척도를 나타냈다. 특히 현재 통합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긍정적 수용척도가 높았으며, 장애남자아동의 경우 유의확률 .055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장애여자아동의 경우 유의확률 .003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IV-32> 경험이 없는 아동의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감정)

범 주			형용사 척도		전체	$\chi^2$	유의확률	
			긍정	부정				
통합 경험 없음	장애아동(남)	통합학급소속	빈도	29	15	44	3.682	.055
		유	범주의 %	65.9%	34.1%	100.0%		
		통합학급소속	빈도	44	47	91		
		무	범주의 %	48.4%	51.6%	100.0%		
	장애아동(여)	통합학급소속	빈도	31	13	44	9.048	.003
		유	범주의 %	70.5%	29.5%	100.0%		
		통합학급소속	빈도	39	52	91		
		무	범주의 %	42.9%	57.1%	100.0%		

\*p< .05

## V. 논 의

본 연구는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수용태도를 현재 통합학급 소속 유·무, 과거 통합학급 경험 유·무, 학년수준, 고학년), 성별로 비교 분석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완전통합교육의 바람직한 자리매김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 1.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라서 일반아동들이 장애아동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등학교 일반아동들의 현재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는 전반적으로 볼 때 통합학급 소속 유·무와 관계없이 부정적 척도가 높았으나, 학업면과 신체적 외양면에서는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보다 소속되어 있지 않은 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높았으며, 사회적행동과 감정면에서는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아동들의 수용척도보다 높았다. 특히 장애여자아동의 경우에 학업면에서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15.4%, 소속되어 있지 않은 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25.6%로서 유의확률 .034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적 행동에 대한 수용에서는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의 장애남자아동에 대한 긍정적 수용척도가 54.6%로서 50%를 넘었고, 소속되어 있지 않은 아동들의 경우 38.5%로서 유의확률 .006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장애여자아동의 경우에도 소속되어 있는 아동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57.7%, 소속되어 있지 않은 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41.0%로 유의확률 .005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감정에 대한 수용에서는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의 장애남자아동에 대한 긍정적 수용척도가 53.1%, 소속되어 있지 않은 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8.7%로 유의확률 .463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장애여자아동의 경우에도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57.7%, 소속되어 있지 않은 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48.75%로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높았으나 유의확률 .130으로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중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 연

구에서'(송진중, 2005)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 더 부정적 수용을 하였다는 결과와는 달리 상황에 따라 수용척도가 다를 수 있었다. 즉 객관적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학업이나 신체적 외양에 대해서는 직접 부딪치며 생활하는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이 더 부정적 수용을 하고 있으나, 직접 접촉하지 않은 소속되어 있지 않은 아동들이 긍정적 수용을 하고, 함께 어울리며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사회적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보아 통합교육은 일반아동의 장애아동 수용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 2.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아동의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에서도 전체적으로 부정적 수용척도가 50%~80%이상으로 높았으나, 학업면에서는 장애남자아동에 대해 경험 있는 아동들의 경우 38.4%가 긍정적 수용을, 경험 없는 아동들의 경우 36.3%가 긍정적 수용을 하여 유의확률 .712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장애여자아동의 경우에도 경험 있는 아동들의 41.1%가 긍정적 수용을, 경험이 없는 아동들의 40.7%가 긍정적 수용을 하였으나 유의확률 .956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경험이 있는 아동들이 학업면에서 극히 낮은 수용을 한데 비해 사회적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는 아동들이 긍정적 수용을 하고 있었으며 장애여자아동의 경우 사회적 행동에서 경험 있는 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55.01%, 경험이 없는 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48.6%로 경험이 있는 아동들이 더 긍정적 수용을 하고 있었으며, 유의확률 .023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은주(1995)의 경험이 없는 아동들이 더 수용적이라는 연구결과나 송말순(2003)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경험이 없을수록 더 긍정적 수용을 한다는 결과, 송진중(2005)의 경험이 있는 학생이 더 부정적이라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일반아동들이 장애아동을 조건적으로 부정적 수용을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며 학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지속적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 3. 학년수준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

학년수준에 따른 장애아동 수용태도에서는 장애남자아동에 대해서는 전반적(학업면, 신체적 외양, 감정면)으로 중학년의 긍정적 척도가 높았으며, 장애여자아동의 경우에는 고학년의 긍정적 척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년이 더 거부적이었다(김영성, 1999)는 연구결과나 저학년이 더 수용적이었다(김동준, 2000)는 연구결과와는 달리 장애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수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혜숙(2003)이나 송말순(2003)의 연구에서는 고학년일수록 장애학생이 고립적이었거나 더 부정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은 초기에 이루어질수록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고, 현재 유아시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통합교육의 실천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4. 성별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

일반아동의 성별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에서는 남자아동들에 비해 여자아동들의 경우 전반적(학업, 신체적 외양, 감정)으로 긍정적 수용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학업관련 수용에서는 유의확률 .015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더 수용적이라는 이은주(1995), 김영성(1999), 김동준(2000)의 연구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였으며, 남학생이 더 수용적(이혜숙, 2003)이라는 연구결과와는 다른 양상이었으며, 여학생에 비해 부정적 척도가 높은 남학생들의 장애아동 수용태도의 긍정적 변환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5. 통합학급 소속 유·무와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 비교

현재 통합학급 소속 유·무와 과거의 통합학급 경험 유·무가 일반아동들의 장애아동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 연구한 결과에서 현재 통합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의 경우 과거에 통합학급 경험이 없었던 아동들의 경우에 긍정적 척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장애여자아동의 경우 신체적 외양(유의확률 : .041)에 있어서나 장애남녀 모두 감정의 수용에서는 유의확률 각각 .036, .035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일반학급 소속아동들의 경우에는 장애아동들의 학업과 관련해서는 경험이 없는 아동들의 경우에 긍정적 수용척도가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학업을 제외한 신체적 외양, 사회적 행동, 감정의 수용에서는 통합학급 경험이 있는 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학급 아동들의 경우에 과거 통합학급 경험이 있는 아동들의 수용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적용해 온 통합교육의 긍정적 영향의 결과라고 보아지며 앞으로도 완전통합을 향한 지속적 관심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또한 과거 통합학급 경험이 있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현재 통합학급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아동들의 경우에는 학업 관련면이나 신체적 외양, 감정면에서는 통합학급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아동들의 경우에 더 긍정적 수용을 하고 있었으며, 장애여자아동의 경우에는 유의확률 .035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적 행동의 경우에는 현재 통합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의 긍정적 수용척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과거의 장애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며,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바른인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식 교육이나 장애인과 함께 하는 날의 운영 등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 VI. 결론 및 제언

### 1. 결 론

본 연구는 전라남도 내의 초등학교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현재 통합학급 소속 유·무, 과거의 통합학급 경험 유·무, 학년수준, 성별에 따른 남·녀 장애아동에 대한 정의적 측면(학업적 행동, 신체적 외양, 사회적 행동, 감정)에서의 수용을 형용사 척도 설문지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초등학교 일반아동들의 남·녀 장애아동에 대한 정의적 측면에서의 수용을 연구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일반아동들의 현재 통합학급 소속 유·무, 과거의 통합교육의 경험 유·무, 학년수준, 성별에 따라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남·녀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위해 전체 3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06부를 회수하였으며 그중 결측 20부를 제외한 286부의 설문지를 통해 얻어낸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일반아동들의 현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를 살펴본 결과 현재 통합학급 소속 유·무와 관계없이 장애아동에 대한 부정적 수용척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통합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아동들보다는 소속되지 않은 일반아동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긍정적 수용척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아 ‘통합학급에 소속된 학생들의 경우 긍정적 수용척도가 높다’는 박미란(2000)의 결과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둘째, 초등학교 일반아동들의 과거 통합교육 유·무가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에 미친 영향은 신체적 외양이나 감정의 수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장애여자아동의 경우 학업적 행동에서 통합교육경험이 없는 일반아동들의 장애여자 아동에 대한 수용에서 과거 통합경험이 있었던 일반아동의 긍정적 척도가 14.6%인데 비해 과거 통합교육 경험이 없었던 아동들의 긍정적 척도가 28.1%로 훨씬 높았으며 유의확률 .00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과거 통합교육 경험이 없었던 일반아동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척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교육으로 인해 생긴 장애아동에 대한 선입견이 작용한 것을 보인다.

셋째, 초등학교 일반아동들의 학년수준이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조사·분석 한 결과 학업적 행동, 신체적 외양에서는 중학년들의 수용척도가 높았고, 사회적 행동이나 감정에서는 고

학년들의 수용척도가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본 연구에서는 일반아동들이 장애아동을 수용하는데 학년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0, 11, 12세 순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더 수용적이었다고 한 김영성(1999, 재인용)의 연구결과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넷째, 초등학교 일반아동들의 성별에 따라 장애아동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한 결과 신체적 외양이나 사회적 행동, 감정 수용에서는 일반아동들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학업적 행동에 대해 일반여자아동들의 여자장애아동에 긍정적 척도가 26.7%, 남자장애아동에 대한 척도가 15.0%로 유의확률 .015로써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여자아동들의 여자장애아동에 대한 긍정적 척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Goodman(1972)이 무학년제 초등학교에서 교육가능급 정신지체 아동의 수용태도 조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호적이었다고 한 연구결과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성, 1999. p.18, 재인용).

## 2. 제 언

이상과 같은 결론을 근거로 하여 장애 학생에 대한 바람직한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초등학교 일반아동들의 현재 통합학급 소속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에서 학업적 행동과 신체적 외양에서는 소속 되어 있는 경우 긍정적 수용척도가 낮게 타났으며, 사회적 행동이나 감정에서는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 긍정적 척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앞으로 초등학교 일반아동들이 장애인식 프로그램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아진다.

둘째, 과거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수용에서는 통합학급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 전 범주에 걸쳐 긍정적 척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통합교육의 경험 유·무가 장애인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아직도 전체 비율로 볼 때 긍정적 척도보다는 부정적 척도가 높아 초등학교 일반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장애인식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내다본다.

셋째, 초등학교 일반아동들의 학년수준에 따른 장애인식에서는 장애아동의 학업



적 행동이나 신체적 외양에 대한 수용에서는 고학년에 비해 저학년의 긍정적 수용 정도가 높았고, 사회적 행동이나 감정 범주에서는 고학년의 긍정적 척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통합교육이 학년수준이 낮은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유아시기에서부터의 통합교육이 앞으로 바람직 할 것으로 보아진다.

넷째, 초등학교 일반아동의 성별에 따른 장애인식 수용에서는 아직도 남·녀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들의 편견이 작용하고 있음을 신체적 외양에서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장애 남·녀 아동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 특수학급 교사는 물론 통합학급의 일반교사들 또한 장애아동 이해에 대한 연수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참 고 문 헌

- 교육법전편찬회(1998). 특수교육진흥법(2차 개정, 1997.12.13. 법률 제 5440호). 서울:교학사
- 국립특수교육원(1997). 현장특수교육. 6(2)
- 권상혁, 황윤환(1995). 일반교육-특수교육 완전통합을 위한 기초조사. 특수교육 연구. 12, 79-97
- 김광웅(1990). 정신지체자유아의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 김동준(2000). 경도 정신지체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수용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김성애(1997). 통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국립특수교육원
- 김성애, 정대영, 박희찬(1997). 통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국립특수교육원
- 김영성(1999). 통학교육에 따른 일반학급 아동의 특수학급 아동에 대한 수용태도.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원경(1996). 한국특수교육의 발전 전망. 특수아동의 통합교육. 연수자료, 우석대학교 특수교육 연구소
- 김정권(1997). 완전통합교육과 학교교육의 재구조화. 서울 : 도서출판 특수교육
- 김정효(1990).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일반 동료들의 수용태도에 관한 일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종삼(2000). 통학교육 경험, 학년, 성별에 따른 일반아동의 장애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태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민은식(1990). 심신장애자 복지정책 과제.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삼육재활원.168.
- 박미란(2000). 통합교육 경험유무에 따른 중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비교. 석사학위 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재국, 강수균, 申司利一(1997). 지체부자유아의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와 대학생의 태도. 난청과 언어장애 연구 제20권, 49-51
- 변찬석, 서경희(1998). 일반학급에서의 경도장애아의 사회적 수용도. 특수교육연
- 송말순(2003).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학생의 수용태도.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용석(1991). 지체부자유아에 대한 일반아동의 수용 태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진중(2004). 중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  
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양섭(1995). 정신지체 아동에 대한 일반학급 아동의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  
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은주(1995). 정신지체 또래에 대한 일반아동의수용태도.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  
교 교육대학원
- 이태영(1980). 특수교육원리. 대구대학출판부
- 이혜숙(2003). 통합교육상황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중학생의 태도연구. 석사학위청  
구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임동규(1995).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 실태와 문제점, 특수교육연구. 제12집,  
123-141
- 임동규, 안인수, 양동란(1996).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사례. 현장특수교육. 1996(가  
을), 48-61
- 정갑순(1980). 또래집단에서의 어린이 사회성발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  
문. 중앙대학교 대학원구. 5, 69-84
- 정재권, 김동연(1988). 한국인의 장애인 의식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1. 우석  
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 부 록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특수학급 아동에 대한 여러 아동들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여러 아동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대로, 또는 아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여러분의 학업성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지 연구 논문에만 활용할 것입니다.

2008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 전공 조현복

◆ 아래의 질문들을 읽어보시고 자신에 해당되는 곳을 하나만 골라 V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학습도움실에 다니는 아동이 소속되어 있는 학급 \_\_\_\_\_

② 학습도움실에 다니는 아동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급 \_\_\_\_\_

▶ 학년 : 3학년\_\_\_\_\_, 4학년\_\_\_\_\_, 5학년\_\_\_\_\_, 6학년\_\_\_\_\_

▶ 성별 : 남\_\_\_\_\_, 여\_\_\_\_\_

▶ 지금까지 학습도움실에 다니는 아동과 같은 학급이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_\_\_\_\_, 없다\_\_\_\_\_

● 아래의 네모상자 안에 있는 글을 읽어보시고 설문지 1과 설문지 2에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정희라는 여자아동과 만기라는 남자아동이 있는데 이들을 학습도움실(특수학급)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아동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설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 설문지 1

만일 정희라는 여자아동이 여러분과 같은 학급의 아동이라면, 아래의 낱말들 중 어떤 낱말을 써서 그를 표현하겠습니까? 아래의 단어들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골라도 상관없으니 원하는 만큼 해당하는 단어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못한다.	거짓말을 잘 한다.
몸이 허약하다.	이해가 느리다.	머리가 좋다.
지저분하다.	부지런하다.	솔직하다.
남과 잘 어울린다.	씩씩하고 건강하다.	이기적이다.
슬프게 보인다.	인정이 있다.	둔하다.
게으르다.	민첩하다.	복장이 단정하다.
행복하다.	부주의하다.	못 생겼다
외톨이다.	발랄하다.	깔끔하다.
단정하지 못하다.	바보스럽다.	꼼꼼하다.
창피해한다.	영리하다.	불행하다.
잘 생겼다.	즐겁다.	

## 설문지 2

만일 만기라는 남자아동이 여러분과 같은 학급의 아동이라면, 아래의 낱말들 중 어떤 낱말을 써서 그를 표현하겠습니까? 아래의 단어들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골라도 상관없으니 원하는 만큼 해당하는 단어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못한다.	거짓말을 잘 한다.
몸이 허약하다.	이해가 느리다.	머리가 좋다.
지저분하다.	부지런하다.	솔직하다.
남과 잘 어울린다.	씩씩하고 건강하다.	이기적이다.
슬프게 보인다.	인정이 있다.	둔하다.
게으르다.	민첩하다.	복장이 단정하다.
행복하다.	부주의하다.	못 생겼다
외톨이다.	발랄하다.	깔끔하다.
단정하지 못하다.	바보스럽다.	꼼꼼하다.
창피해한다.	영리하다.	불행하다.
잘 생겼다.	즐겁다.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특수교육	학 번	20011035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조 현 복                      한문: 조 현 복                      영문: cho hyeon bog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공원리 316번지				
연락처	E-MAIL: chb327@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초등학교 아동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 비교 연구 영문 : A Comparative study on acceptable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9년 2월 일

저작자: 조현복(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